인물탐방

길쌈, 경제사, 쇠부리 복원연구에

앞장선 권병탁 박사

맑은 가을 날씨에 지난 9일 권성일 (주)성진건업사장의 마중으로 대구 팔공산자락 대왕골에 7,000여 평의 매실농장과 약초밭, 150평(2층)으로 된 전통산업박물관에서 조선 말기 길쌈연구며 한국경제사 특수 연구, 전통 쇠부리 복원연구 등으로 1994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권병탁 박사(87. 성주 영남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이어 권박사와 1시간여에 걸쳐 인터뷰를 하고 이어서 박사의 안내 설명으로 1-2층 전통산업박물관을 관람했으며 이어서 경북 성주로 이동해 권성일 검교공파 영야헌공계 종회장, 권병운 옹, 권태균(대구 향교 장의), 권중곤씨의 안내로 성주 군용암면 사릉동에 있는 영모재(永慕齋)와 영야헌공(詠野軒公 휘 有儉), 길쌈방 등을 두루 탐방해 취재했다. "쓸어내면 쓰레기도 보호하면 보물"이란 좌우명으로 '農心', '文心', '梅心'으로 동고동락하면서 80여 생을 일관해온 권병탁 명예교수는 1929년 7월7일 경북 성주에서 엄친 권재수씨와 자당 이외조 여사의 2남으로 검교공파 영야헌공(휘 有儉)계 후손으로 태어났다.

당시 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던 터라 집안은 넉넉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두뇌가 명석하여 학업을 꾸준히 이었으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제는 학교에서 우리말을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국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교사로 모두 일본인 교사로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도 조선인이라는 여러 번 구타도 당하였다. 광복 바로 직정, 청년훈련소 소년항공병으로 지원해 제대했다. 이어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도 고령중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었다. 경북대 학사 학위를 마친 후 석사과정 중에 경북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다. 권박사는 오래 전부터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고등학교 교사가 교수가 되기 위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였다. 교사로 임용된지 6년 후 5.16이 터졌고 이에 대항한 경북고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옥고를 치뤘다.

하지만 결국 1968년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영남대 기획실장, 산업경제연구소장, 상경대학장, 학생처장, 민족문화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오랫동안 간직해 온 그 꿈을 이루었다. 30여 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재미있게 강의를 하여 인기도 많았으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그리고 퇴직 후에 할 박물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필요한 것들을 평생 자택 지하실에 차곡차곡 모았다. 이리하여 1975년 5월 대구 대명동에서 '추연생산도구연구소'로 처음 발족해 80년 6월 전남 송광사에서 야생 씨매실 씨앗을 입수하여 텃밭에서 싹을 틔었으며 87년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권병탁 씨매실밭을 개설했다. 이어 91년 대구시 동구 덕곡동에 '송광매원'을 개설했으며 92년 8월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전통 쇠부리를 복원했다.

2001년부터 권병탁씨 매실보급운동을 전개했으며, 2002년 5월 송광매기념관을 문화관광부에 2층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2003년 3월 대구시 동구 덕곡동 팔공산 대왕골에 송광매기념관을 건립해 개원했으며 2004년 한국의 전통직물과 천연염색 특별전을 개최했다. 2005년부터 무명짜기 명주짜기 실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2006년 7월 '장애우와 함께 하는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2014년 8월 전통산업박물관으로 명칭변경하였다.

전시실은 자연염색방, 도자기방, 길쌈방, 쇠부리방, 약령시방, 국원예방(국원 송수희여사 작품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실관련 자료, 전통생활관련자료들이 추가로 전시되고 있다. 또한 7,000여 평의 야외공간을 매실농장과 약초밭으로 활용하면서 체험과 학습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 기념관은 일곱 가지 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편 매실방은 '권병탁 씨 매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2편 국원예방은 전통천연염색과 서예 등 국원 송수희여사(권병탁씨 부인)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제3편 도자기방은 전통토기, 청자, 분청자기, 백자, 옹기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제4편 길쌈방은 명주, 무명, 삼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제5편 쇠부리방은 전통쇠부리(야철)에 관한 실증적 자료 일부이다. 전통쇠부리복원 연구소는 긴 시간을 투자해 이로써 경제학자로서는 무척 영예로운 다산 경제학상을 86년 수상했다. 91년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두두리집에서 대장간을 복원하고 용광로를 만들었다. 제6편은 권박사의 일생을 모아온 생산도구와 생활자료, 제7편은 대구 약령시와 관련된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권박사야말로 산 학문을 하고 있는 참스승이며 그는 일반 학자들이 번역서나 발췌서를 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옛 길쌈, 도자기, 쇠부리, 약령시 등의 참 모습을 되찾는데 기여했다. 또한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1만여 점의 유물은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권관장의 분신이며 금자탑과 같아 초등학생들도 많이 보러와 우리의 역사의 한 면을 보고 가기도 하고 사학과 학생들도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노인들도 오셔서 옛 추억에 잠기곤 한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실의 좋은 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매실보급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국가발전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권박사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남문학상, 한국경제학회상, 다산경제학상, 대한민국학술원상 등을 수훈했으며 논문 160여 편, 연구저서 21권 등이 있으며 현 대구시 약령시 연구회장, 권병탁매실송광매보급운동본부장, 길쌈보존회장, 경제사상연구설립 실무대표, 영남대 명예교수, 송광매기념(전통산업박물관설립자)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생활에 안주하지 마라, 인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취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서는 독립운동가, 정치가인 백범 김구 선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야헌공(휘 有儉)은 시조 태사공의 16세손이며 검교공파로 검교대장군(휘 倜)의 6세손으로 고조(휘 守英)이며 벼슬은 중랑장 증조(휘 顯)이고 관직은 부사이며 조(祖)는 휘 定이고 호는 사복제로 고려 좌사관을 지냈으며 조선조가 들어섬에 그 뜻이 총정하여 벼슬을 버리고 안도 기사리에 운둔하였으며 망복지신의 의리를 지켰다. 고(考)는 휘 曙이고 울산부사, 철원부사를 지냈으며 영야헌공은 가산군수를 지냈다.

한편 권성일(75. 성주, 33世, 검교공파, 영야헌공종회장)씨는 (주)성진건업사장,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상북도회부회장이며 구미지역 건설(건축, 토목)분야에 중견기업인으오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야헌공종회장으로서 선조 유적지 수호와 관리에 크게 진력하고 있으며 모든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권오창(79, 영주, 검교공파 35世,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하남자문위원)씨가 본인 저서 및 술을 병탁박사와 태균씨, 성일회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권박사는 국원 송수희여사(83세. 천주교 테레사)와의 슬하에 장남 남익(외국어대 물리학박사), 차남 종검(전 대구은행 서울지점영업부장), 3남 종욱(영남대교수), 딸 향아(부산경성대교수를 두고 이제 하고자 하던 뜻을 모두 이루고 80여년의 인생을 관조하면서 자연을 진지하게 추구해 가고 있다.

〈글: 권오복 편집위원, 사진: 권경일 기자〉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영야헌공 유허비

△성주군 용암면 사충동에 있는 영야헌공 영모재

△좌로부터 권오창 자문위원, 권성일 성진건업사장, 권병탁박사, 권오복 편집위원, 권태균 대구향교 장의, 권경일 기자

부산종친회 신입회원 상견례

부산종친회는 지난 8월 25일 오후 6시 30분경에 회원 100여명 참석하에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장년회 권장섭씨의 사회로 상례행사와 상읍례를 마치고 권영호 회장은 임원소개로 고문 6명, 자문위원 19명, 명예회장 1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등을 소개하고 수석부회장 권성용씨에게 추대장을 수여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일일이 우송 하였음을 알렸다.

이어서 부회장, 운영위원 등 나머지 인원은 사회자가 호명하여 소개하였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제39차 정기총회를 기하여 부산종친회장으로 선임되였음을 말하고 여러가지로 미흡한 저가 회장을 맡게된 것을 송구 스럽게 생각하며 일록 및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하여 열심히 할 것을 강조하고 전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하였다.

축사로 고문인 권철현 전 의원은 일본 쓰구바 대학시절 이야기와 권영호 회장은 전 경남향우연합회 회장을 맡아 향우회원들의 성원속에 무사히 마감하고 부산 종친회를 맡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권길상 전 회장은 권영호 신임회장이 부산종친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믿고 여러일록과 회원님들의 도움을 강조하였다.

권영한 고문은 부산종친회가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종친회임을 이야기하고 권영호 회장은 더 잘하실 것을 부탁하였다.

끝으로 만세 삼창은 권성현 자문위원회장 선창으로 이날 행사를 모두 마치고 화기애애한 속에 석식으로 산회했다.

〈권재혁 사무국장〉

△권영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인재양성의 요람 대영고등학교

유림의 고장 경북 영주에 소재하는 대영고등학교(설립, 경영자, 대종원 부총재 권무탁)는 1982년에 개교하여 올해 31회 졸업생을 배출한 비교적 짧은 역사의 소규모 학교이다. 33년간 인성과 지성을 겸배한 지역의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활동의 성과는 매우 놀랍다. 총 졸업생 6,011명을 배출하는 가운데 서울대 147명, 연세대 108명, 고려대 165명, 의·약학계열 99명 등 주요 명문대에 1,275명(졸업생의 21%) 합격생을 배출하였다.

고등학교 재학중 학업역량을 갖추고 졸업한 졸업생들은 사법고시 15명을 포함하여 행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등 주요 국가고시 합격자가 46명이나 되는 등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였다.

금년에도 19회 졸업생 송태원씨는 대구지점 검사로 임용되었으며, 11회 졸업생 박재준씨는 미국 공인회계사에 이어 국제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로펌(넉서스)에서 국제간 기업법률 대리활동을 하는 등 대영고등학교는 인재 양성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우리 권문의 자랑이기도하다.

〈대영고등학교 자료제공〉

권정택 기로회장 차남 전통혼례 소개

△ 운현궁에서 권오흥(五興) 인간문화재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1. 신랑이 원앙을 받는다.
2. 집례가 혼례식을 진행하고 있다.
3. 신부가 신랑에게 배례하고 있다.
4. 권오흥 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서울 운현궁에서 안동권씨 기로회장 권정택(성균관 전의)씨 차남 창안군과 조씨문중 정옥군이 전통혼례식을 가졌다.

하객은 권익현 전 민정당고문, 권영익부총재, 권경석 대종원사무총장, 권병홍 전 기로회장, 권영걸 안숙공회장 등 권문에서 30여명과 고향유림 등 300 여명이 참석하여 축하해주었으며, 우리나라 전통혼례를 성균관 전례위원의 집례와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집례해설에 따라 35분간 진행하였으며 권오흥 무형문화재 제85호 (전 중앙종친회 감사)의 격려사를 끝으로 성대히 마치었다.

권오흥 원장은 격려사에서 "지아비 부(夫)자에 담겨있는 뜻은 부부가 서로 지극한 정성으로 소중하게 섬겨야 한다는 뜻이며 지어미 부(婦)자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모양을 형상하는 것으로 가정의 돌봄입니다. 혼인을 한 뒤에는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가정을 지키고 돌보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결혼의 성공은 적당한 짝을 찾는데 있다기 보다 적당한 짝이 되는데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 가운데서도 '섬김과 돌봄'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라 하였다.

〈편〉

• 동정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상하수도협회 정기 총회에서 제9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 선임됐다.

▲**대산농촌문화재단은 권윤주**씨(58. 농촌발전부문)를 제24회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로 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태평양 여성기업인 25인 중에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12위에 올랐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안동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도시재생으로 원도심을 활성화와 함께 도청신도시와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가는 물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이 지난 27일 서울하얏트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중·일 한경제발전협회와 업무협약체결에 **권순기 중·일 한경제발전협회 집행회장**이 참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54)**을 신임 원장에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9월1일 새로 출범한 KEB하나은행에 글로벌그룹사업장 **권오훈**씨가 부행장으로 선임됐다.

正獻公 鷄林府院大君 王煦先祖秋享祭 案內

民統線내(長淌) 正獻公의 秋享祭와 密直公 王重貴(十五世), 府尹公 諱 肅(十六世), 執義公 諱 嚴(十六世), 左尹公 諱 循(十七世), 花山府院君 諱 復(十七世), 直長公 諱 得(十七世), 知敦寧府事公 諱 格(十八世), 禮參公 諱 至(十八世), 主簿公 諱 永聃(十九世), 선조님의 추향제를 하기와 같이 봉행하오니 많은 참제 바랍니다.

△ 일 시 : 2015년 10월11일(음 8월 29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 교 통 편 : 자가용 등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은 전진교 광장에 오전 9시30분까지 도착요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로타리에서 오전 7시30분 전세버스가 출발예정(서울 참제원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접수마감 : 2015년 9월 30일
△ 회 비 : 1만원(필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참제자는 필히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세버스를 이용코져 하시는 종원은 접수마감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 락 처 : 회장 권준식 (02)932-6267, 010-7517-6267 사무처장 권석원 011-289-3856

2015. 10. 1

安東權氏 正獻公派宗中 會長 權 俊 植

창화공 추향 안내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민통선내 창화공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14世 贊成事 昌和公(諱準)의 추향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본손은 물론 방손 여러분의 많은 參祭바랍니다.

■ 일 자 : 2015년 10월 25일(넷째 일요일) 12시
■ 교통편 : 서울 광화문 세종로 문화회관 옆에서 9시30분 전세버스가 출발함
그밖에 승용차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실 분은 파주시 임진강 북진교(리비교)광장에 10시30분까지 도착하실 것
■ 지참물 : 주민등록증 지참 ■ 연락처 : 창화공 종회장 권병선(02)957-8822, 010-5273-7475

2015. 10. 1

안동권씨 창화공종회 회장 권 병 선